

# 文 “공천권 내려놓겠다” vs 박 “당의 슈틸리케 될 것”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 野 당권주자들 서울 간담회서 수도권 표심 놓고 격돌

### 李 “당과싸움 심해지면 패망... 단결해야 총선·대선 승리”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27일 수도권 표심을 놓고 격돌했다. 문재인·박지원·이인영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회 2차 합동간담회에서 당권·대권 분리론과 세대교체론 등 기존의 주장을 토대로 공격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문 후보는 “당권·대권 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당 대표가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대선주자의 당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박 후보를 향해 역공을 폈다.

그는 “저는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손에서 내려놓기 위해 대표가 되려는 것”이라며 “공천하면 서 과거같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 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당직 인사에서 조금이라도 친노를 챙기는 기색이 보이면 당 안팎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다. 그 순간 저는 실패한 당 대표가 되지 않겠다”라면서 “제가 상처받거나 망가지더라도 당부터 다시 살려놓고 봐야겠다”는 각오로 경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한 사람이 당권과 대권을 다 가진다면 우리 당의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어디로 가서 뭘 해야하나. 이것은 지난번 욕심이고 집권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당권·분리론을 거듭 외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당과 신당 창당을 걱정하고 있다. 독립하면 분열하고 패배한다”라며 문 후보를 정조준했다.

박 후보는 “지금 우리 당에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슈틸리케 감독처럼 용인술이 뛰어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 박지원이 당의 슈틸리케가 돼서 반드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며 축구대표팀을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시킨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예로 들었다.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이 후보는 “조선 후기

영·정조 때 개혁에 실패하고 당파싸움이 극심해지는 와중에 조선이 쇠락 일제에 의한 패망으로 갔다. 지금이 그때처럼 중요한 시간”이라며 당의 계파·지역 싸움을 당파싸움에 비유했다.

이 후보는 “친노와 비노, 영남과 호남의 분열을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단결해야 우리는 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지도부를 전면 교체해서 우리 당이 변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는 없다”면서 “50대를 중시해 노년, 청년을 통합하는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세대교체론을 거듭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친박’ 유승민 출마 선언 與 원내대표 경선 본격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유승민 의원은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차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는 4선인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포함해 두 명이 됐다. 일부 수도권 중진들이 출마를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양강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 동에서 내리 3선을 한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로 선출해주면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또 “새누리당 당헌 제8조가 정한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가장 충실한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당헌 8조는 대통령이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한다는 게 골자다.

유 의원은 이주영 의원과 차별되는 장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우리 당에 바라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내가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는 원내대표는 내가 더 적합한 게 아니냐”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계파 성향과 관련해 “나는 영원한 친박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치적이고 인간적 신의를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엔 이른바 ‘신주류’와 청와대 측에 쏠리기를 꺼리며 거리를 뒀다. 유 의원의 정책위의장 ‘리빙 메이트’ 후보로는 수도권 중진인 원유철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당대표·최고위원 및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합동간담회에 앞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지원(왼쪽부터),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문재인 ‘호남총리’ 발언 하루만에 “충청권에 서운함 느꼈다면 사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호남 총리’ 발언에 대해 사죄했다.

문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총리’ 관련 질문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흠을 잡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제 발언으로 충청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이번에는 반대편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 후보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 발탁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반대쪽 50%를 포용할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하는데 정말 어렵다”고 발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이날 충남 출신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문 후보의 호남 총리 발언을 겨냥, “문 의원이 지역주의, 편 가르기 발언을 해 1000만 충청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부대표는 “대한민국 총리가 영남이면 어떻고 호남이면 어떻고 수도권, 충청이면 어떻느냐”며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분이면 임명하는 것이 지역주의의 망령을 부추기는 식으로 호남 인사가 돼야 한다고 발언해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文이 당권 잡는 것 원치않고 그렇다고朴을 밀 수도 없어...

### 새정치 비노·중도 성향 의원들 전대 앞두고 고민

라고 전했다.

비노 의원들의 딜레마는 대다수 의원들이 지난해 말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의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에 가담한 데서 비롯된다. 성향상으로는 박 후보가 가깝지만, 문 후보와 함께 불출마

대상으로 꼽았던 박 후보를 대안으로 내세운다면 자가당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후보는 아예 노선이 달라 비노 쪽에서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 게다가 문 후보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를 공

개 지지한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는 분위기가.

그러나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면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 비노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는 최근 비노 진영의 거물급 인사 두어명과 잇따라 만나는 등 중도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비노 의원들이 모인 것 자체가 문 후보를 위한 게 아니니까 결국 단계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전화를 돌리고 만나는 등 각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비노·중도 성향 의원들이 2·8 전당대회와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친노를 대표하는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후보를 밀기도 곤란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중도 성향 의원그룹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이 지난 26일 정기모임에서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모임에는 민집모 회원 20여명 중 7명만 나와 주승용·문병호 의원 등을 최고위원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만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집모 소속의 한 의원은 27일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

## 201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정리컨설팅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전문컨설턴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자격요건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손실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폐업 유도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		모집분야	
모집대상		모집자격	
○ (일반컨설턴트) 폐업예정자를 위한 사업정리컨설팅(폐업관련 신고사항, 점포정리절차, 폐업 시 점포전환, 신용불량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세부요건	
○ (세무·회계컨설턴트) 폐업예정자를 위한 사업정리컨설팅(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고 대행, 폐업·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의 절세방법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일반자문컨설턴트	
수행내용		세무·회계	
분야	지원내용	세무사, 회계사	
일반자문	·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 각종 신고사항, 폐업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불이익 설명 · 재무상태 분석하여 차입금 상환 방법, 관련 정보 제공, 신용불량 예방 방법 · 시설, 재고물품 등 폐업 재산 처분관련 방법 · 기타 사업정리컨설팅관련 자문 및 안내	·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 법무사·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1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 3건 이상 있는 자 · 경영지도사 등록증 소지(유효기간 내) 중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있는 자 · 사업정리업무와 연계된 기관(세무서, 국세청,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있는 자 · 법률, 세무, 회계, 경영학관련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중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건 이상 사업정리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턴트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 7건 이상 있는 자	
세무회계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대행 · 폐업, 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의 절세방법, 관련 정보 제공 (잔존가액 및 부가치세 계산 업무, 포괄 양수도계약 방법) · 기타 사업정리(세무·회계)관련 신고업무 대리	·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 지원분야별(일반자문, 세무·회계) 중복신청 불가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홈페이지(<http://www.semash.or.kr>) 공지사항 참조
- 접수방법 : 광주호남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403호
- 접수마감 : '15. 2. 4(수) 18:00시까지 도착 및 24(수) 우체국 소인본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369-8755**